

# 미국은 지금

## M&A 활성화와 수혜 산업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리서치팀

US Strategy 김승혁 ocean93@kiwoom.com



### Issue Brief

#### M&A 시장 동향 및 추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와 친기업 기조는 2025년 글로벌 M&A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9월까지 미국 내 M&A 규모는 YoY +23% 증가한 1.36조 달러로 글로벌 시장의 46%를 차지했고, 글로벌 전체 규모도 2.9%조 달러로 YoY +32% 확대되며 1970년 이후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거래 건수는 감소했음에도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 뚜렷해졌는데, 이는 초대형 거래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8월까지 50억 달러 이상 거래가 93건(YoY +72%), 100억 달러 이상 메가딜이 43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더불어 금리 인하에 따른 자본 비용 절감, Private Equity 자본의 적극적 유입, 경기 침체 우려 완화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맞물리면서, 향후 글로벌 M&A 및 자금조달 시장은 활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 M&A를 이끌고 있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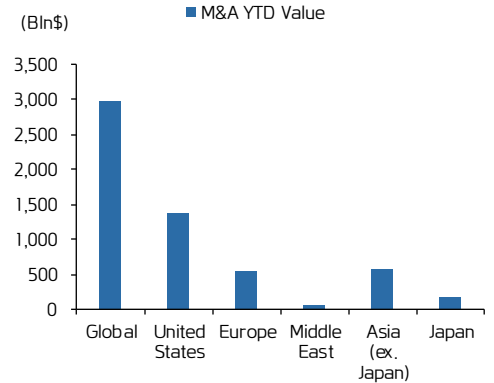
미국 M&A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흐름은 IT 섹터의 주도권 확보다. 올해 누적 거래 규모는 3,559억 달러로 YoY +53% 급등하며 전체의 22%를 차지했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들이 거래를 이끌었다. 이에 AI 관련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까지도 확인되고 있다. 반면 에너지는 2,483억 달러로 규모 면에서 2위를 지켰으나 성장률은 3%에 불과했고, 산업재는 200%라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총액이 2,427억 달러에 머물며 3위에 자리했다. M&A 시장에서도 산업별 차별화가 점차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M&A 시장이 꾸준히 활성화될 경우 수혜가 집중될 산업은 IT와 함께 헬스케어, 금융이라 판단한다.

#### M&A 시장을 주관하는 핵심 플레이어

글로벌 M&A 시장은 현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 모건의 3강 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약 8,892억 달러 규모의 거래에 참여하며 30%라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모건스탠리와 JP 모건이 각각 7,265억 달러(24.5%), 6,411억 달러(21.6%)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그러나 단순 M&A 자문 거래뿐 아니라 IPO, 채권 발행 등 자본시장 전반에서 벌어들인 수수료 기준으로 보면 구도는 다소 달라진다. JP 모건이 74.3억 달러로 1위를 차지하며 가장 폭넓은 수익 기반을 확보했고, 골드만삭스(61.6억 달러)와 모건스탠리(49.0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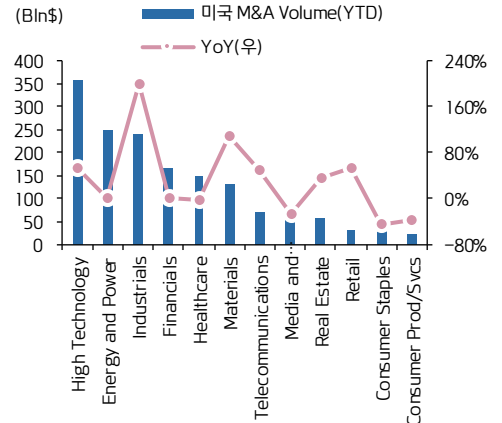
(2page 계속)

#### 지역별 M&A 거래 규모 비교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산업별 미국 내 M&A 거래 규모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골드만삭스는 초대형 M&A와 IPO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형 거래에서 강점을 보였고, JP 모건은 ECM과 DCM을 포함한 자금조달 전반에서 균형 잡힌 경쟁력을 유지했다. 모건스탠리는 두 하우스의 중간적 위치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졌다. 이처럼 세 곳이 자문 시장과 자금조달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M&A가 확대될 경우 이들의 비이자수익 개선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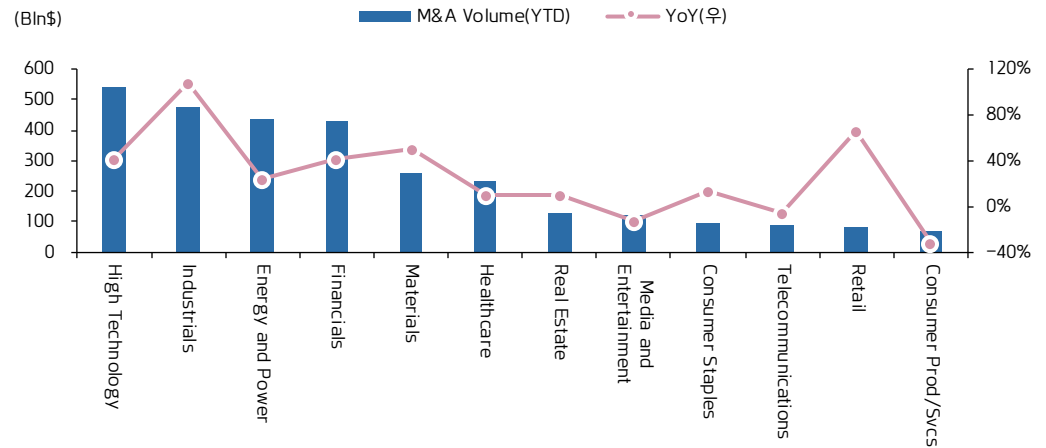
### M&A 활성화 속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들

앞서 언급했듯, M&A 시장이 꾸준히 활성화될 경우 수혜가 집중될 산업은 IT를 비롯해 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방산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IT 섹터는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심사 완화로 빅테크 기업들이 망설였던 전략적 인수를 다시 추진하고 있으며, 스타트업에게는 인수를 통한 엑시트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써 창업과 재도전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여기에 IPO 심사 간소화가 현실화되면 R&D 중심 IT 기업들의 상장 추진이 한층 수월해져 유니콘 기업들의 IPO 본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작동할 경우 빅테크는 신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투자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스타트업은 자금 창출 기회를 넓히면서 IT 산업 전반의 자금 순환과 생산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헬스케어 산업 역시 규제 환경 변화 속에서 M&A 수혜가 기대된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병원 통합이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승인 절차가 까다로웠고, 제약사의 소형 바이오텍 인수는 '킬러 인수'로 규정돼 제약되었으나, 25년 8월 경쟁촉진 행정명령 철회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명백한 경쟁 중첩이 없는 거래는 신속히 승인되기 시작했고, 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이 사전 상담 제도를 도입하면서 불확실성도 줄었다. 이로 인해 특허 만료를 앞둔 빅파마들이 유망 신약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는 딜 스프리가 촉발될 수 있고, 바이오텍 스타트업에게는 M&A와 IPO를 통한 자금 확보 기회가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자금 순환과 혁신 동력이 강화되며 헬스케어 부문의 활력이 높아질 여지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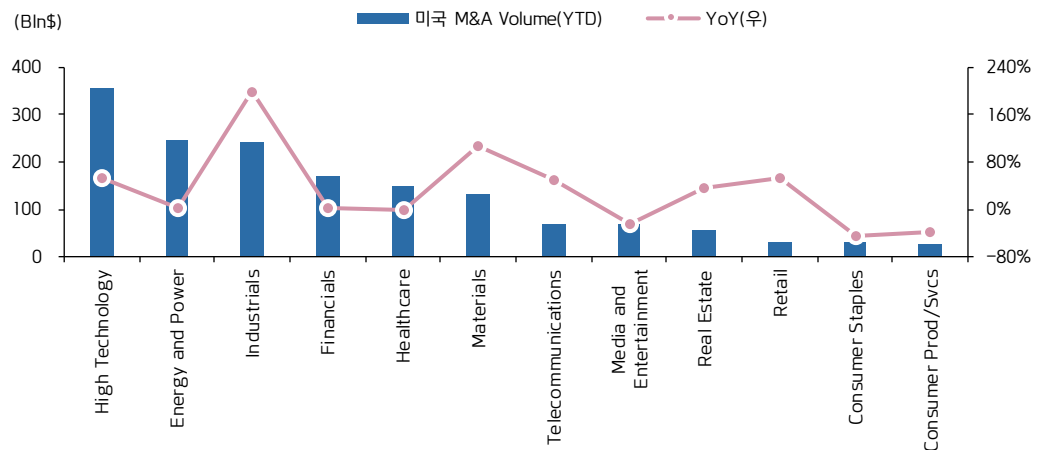
금융 산업은 M&A 시장 활성화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처로 꼽힌다. 앞서 언급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 모건과 같은 대형 은행들은 전통적인 NIM 중심 수익구조를 넘어, 인수합병 자문 및 IPO 주관을 통한 비이자 수익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M&A와 IPO가 활발해질수록 이들 금융기관은 자문 수수료 유입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정책적 지원도 더해지고 있다. 연준이 10월 1일 모건스탠리의 스트레스 자본 완충 요건(SCB)을 5.1%에서 4.3%로 낮추며 운용 여력을 확대한 데 이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 완화도 10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규제 완화와 자본 운용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금융 산업은 비이자 수익 확대와 함께 시장 환경의 직접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별 M&A 거래 규모 및 성장률\_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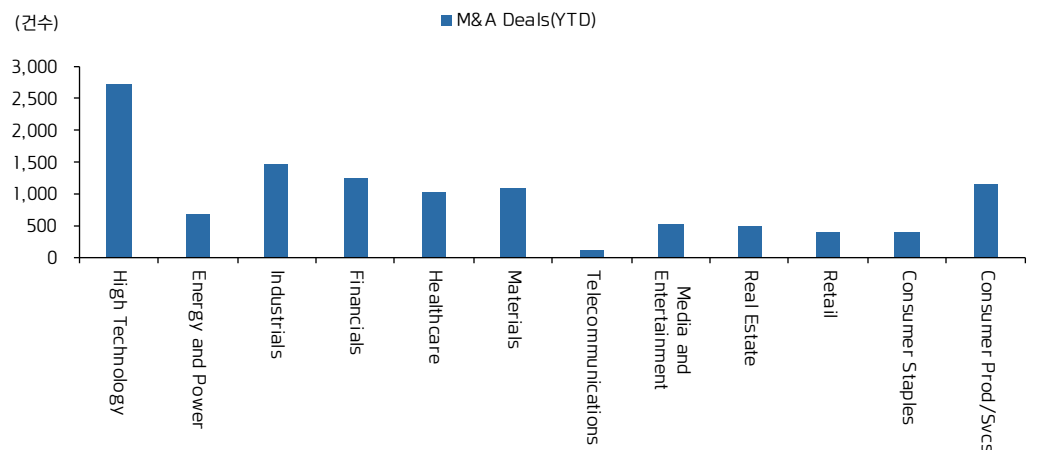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 는 1~9 월까지 누적치

### 산업별 M&A 거래 규모 및 성장률\_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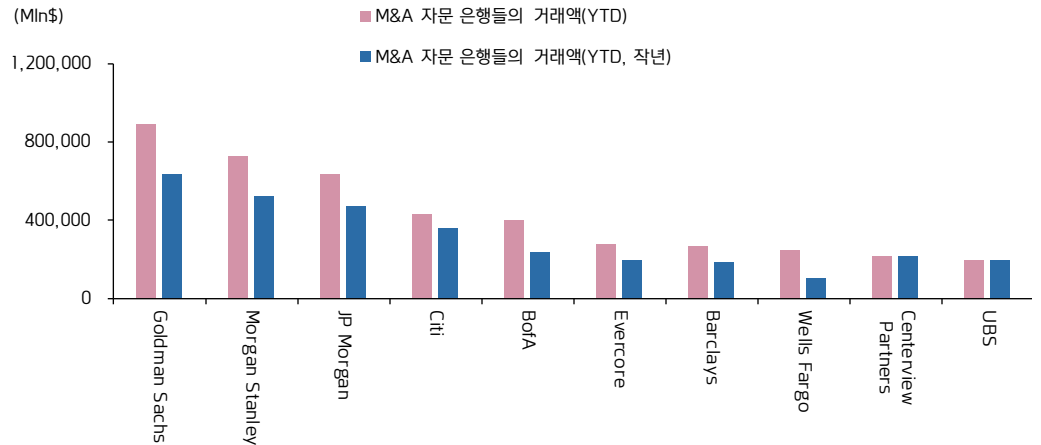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 는 1~9 월까지 누적치

### 산업별 M&A 거래 건수 및 성장률\_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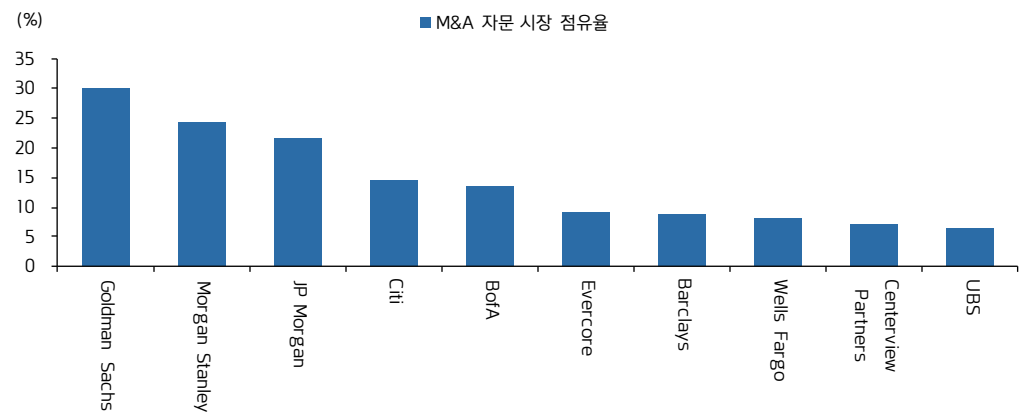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 는 1~9 월까지 누적치

### M&A 자문 은행들의 거래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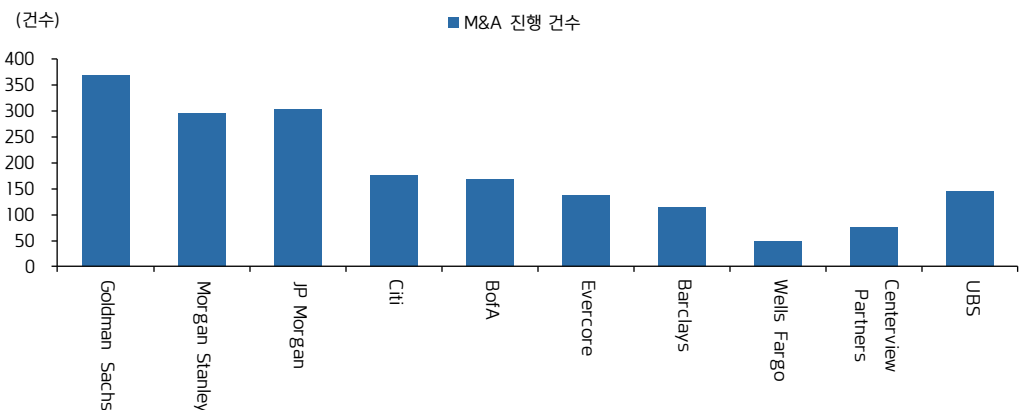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주관사 별 M&A 자문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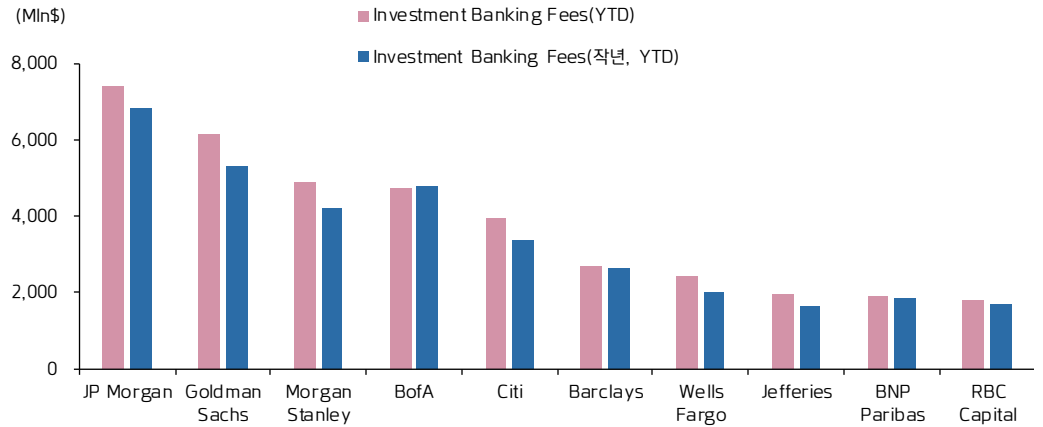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주관사 별 M&A 진행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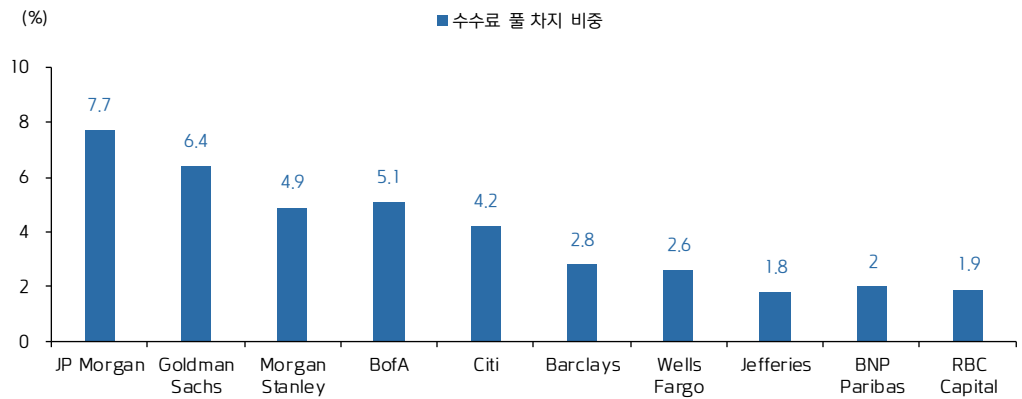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Investment Banking F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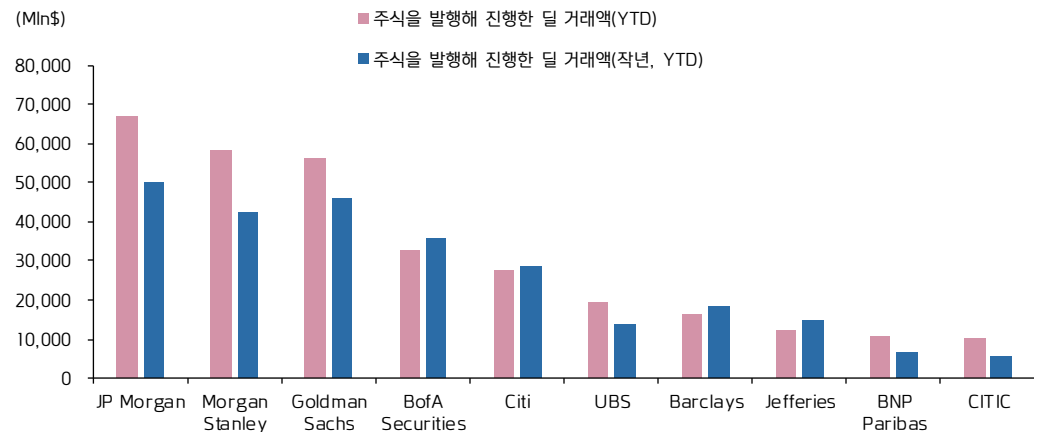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주관사 별 수수료 풀 차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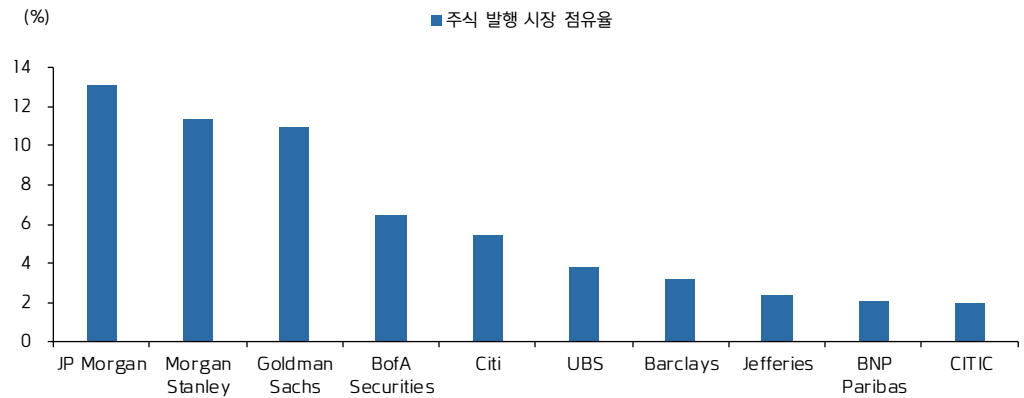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주식을 발행해 진행한 거래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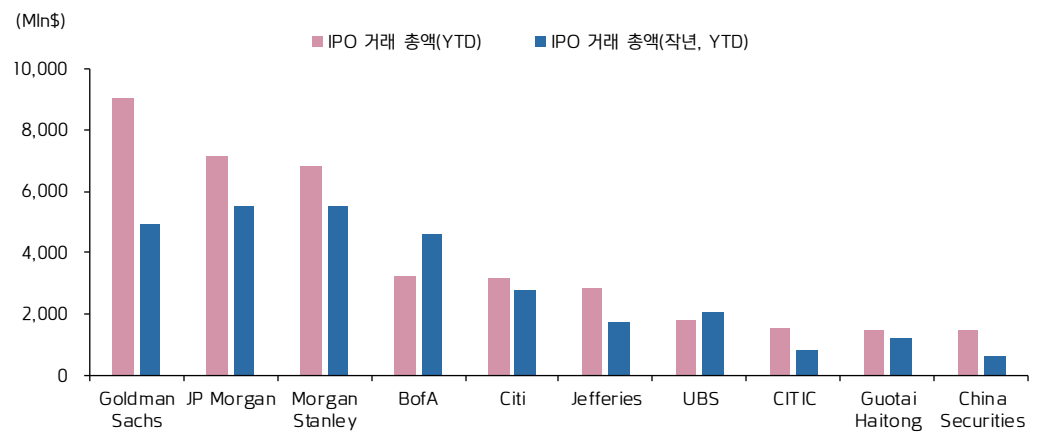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주관사 별 주식 발행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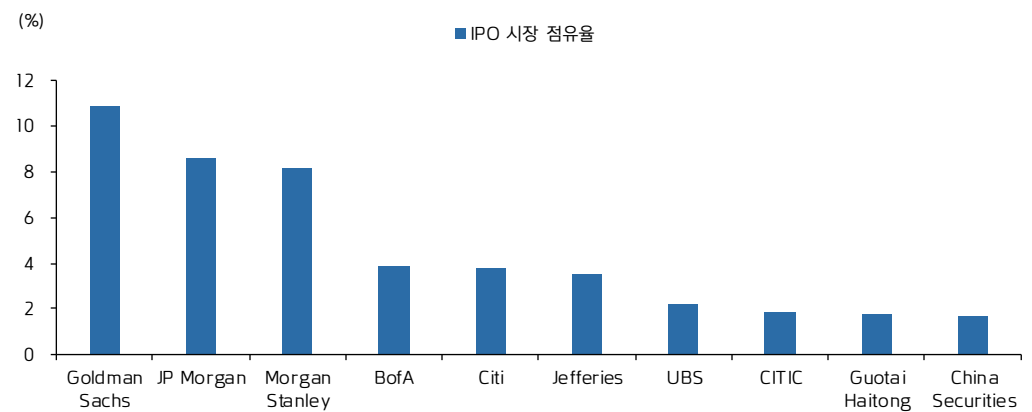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 는 1~9 월까지 누적치

### 주관사 별 IPO 거래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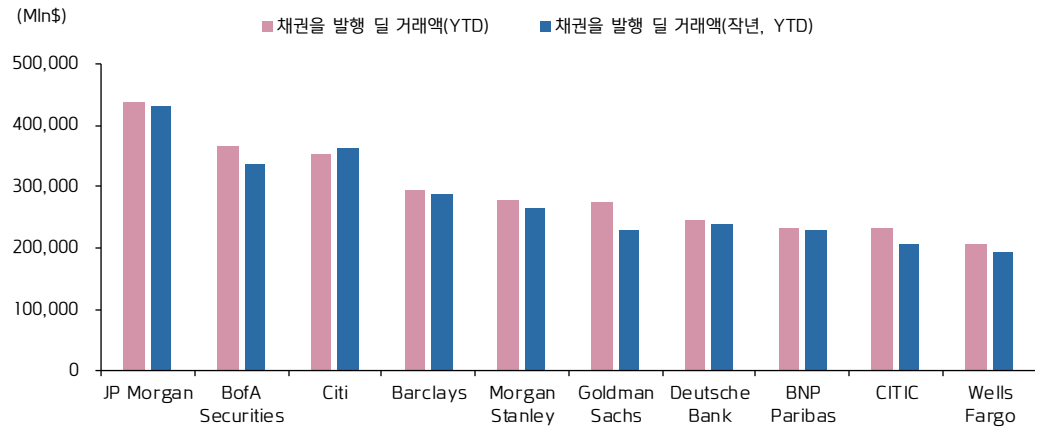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 는 1~9 월까지 누적치

### 주관사 별 IPO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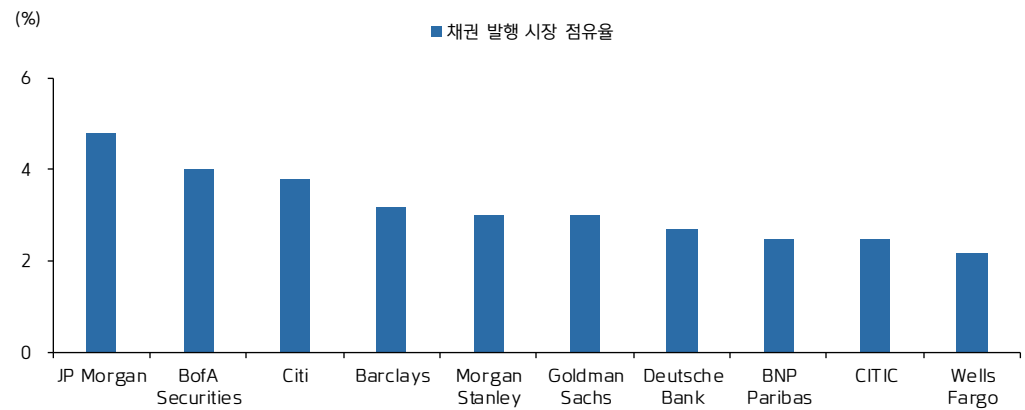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 는 1~9 월까지 누적치

### 주관사 별 채권 발행 거래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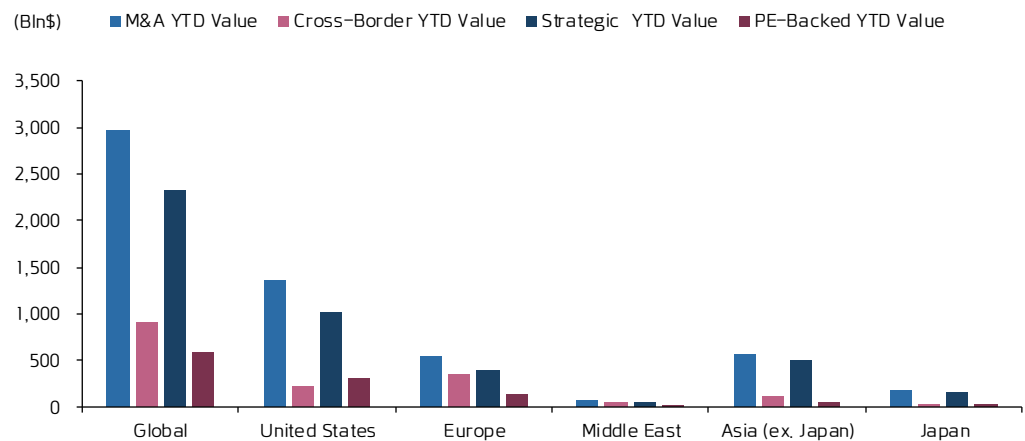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주관사 별 채권 발행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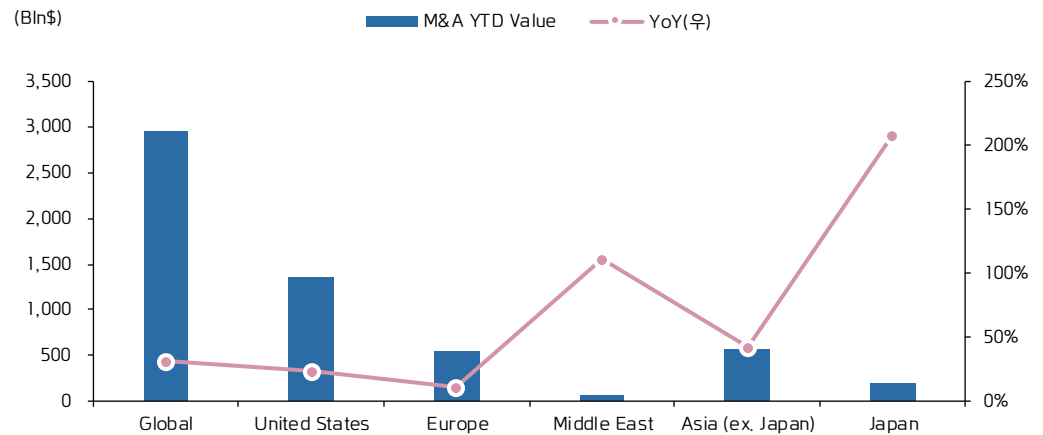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M&A 종류에 따른 국가별 거래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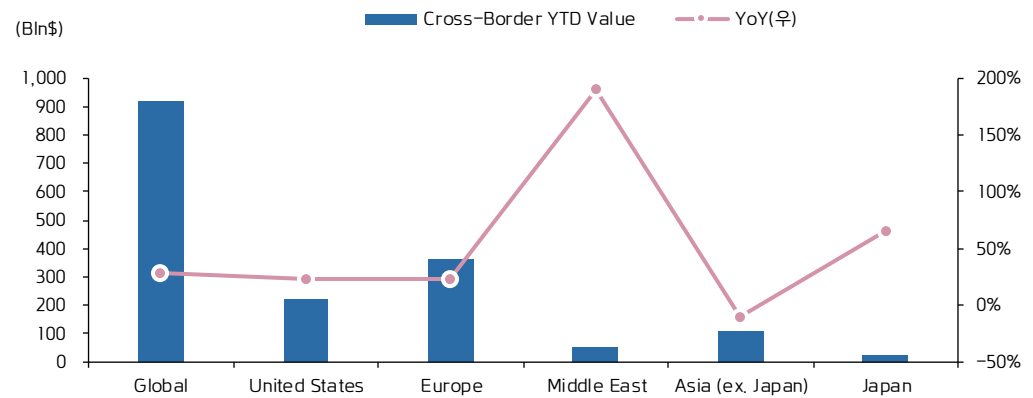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M&A YTD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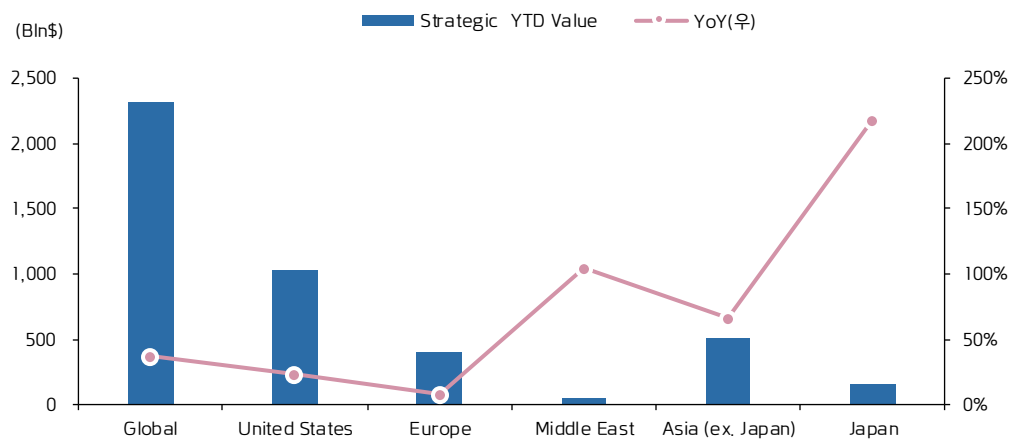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Cross-Border YTD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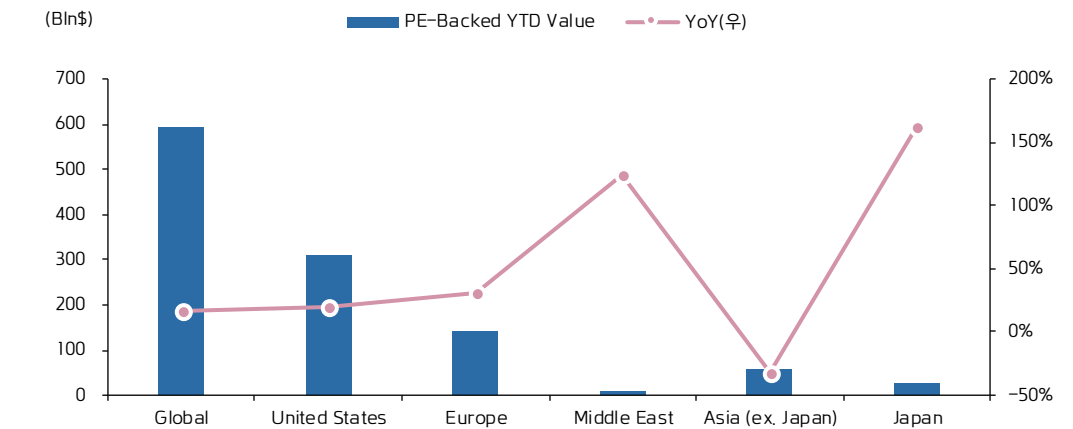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Strategic YTD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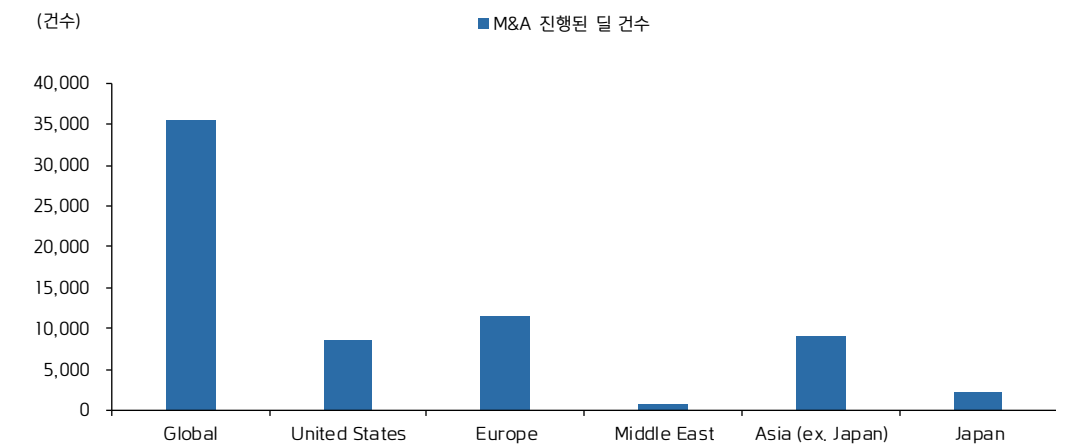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PE-Backed YTD Value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M&A 진행된 딜 건수



자료: Refinitiv, 키움증권 리서치 주) YTD는 1~9월까지 누적치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